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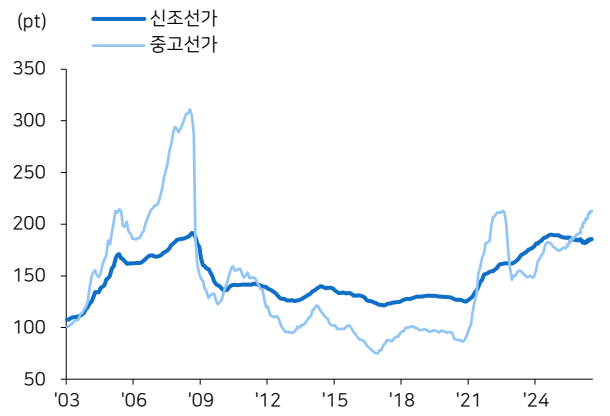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7. 13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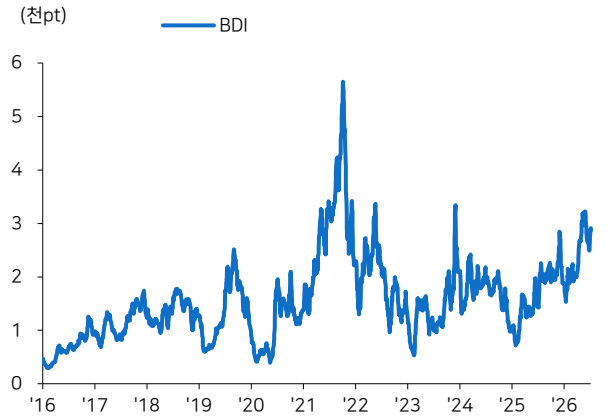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4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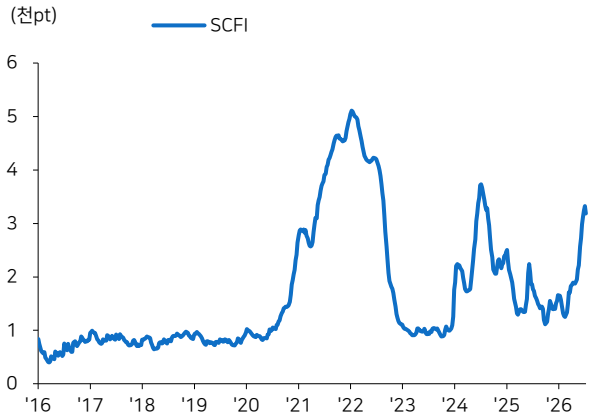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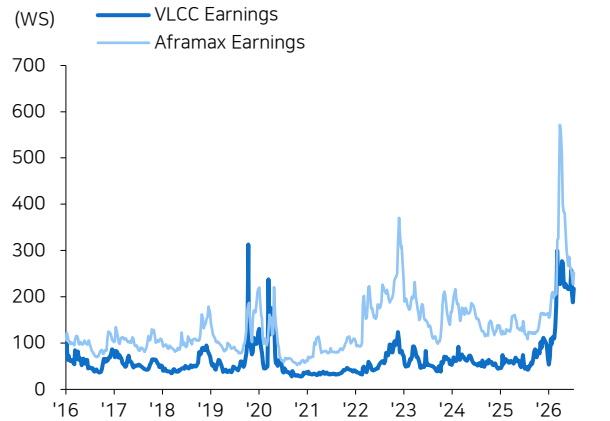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10.0p (+3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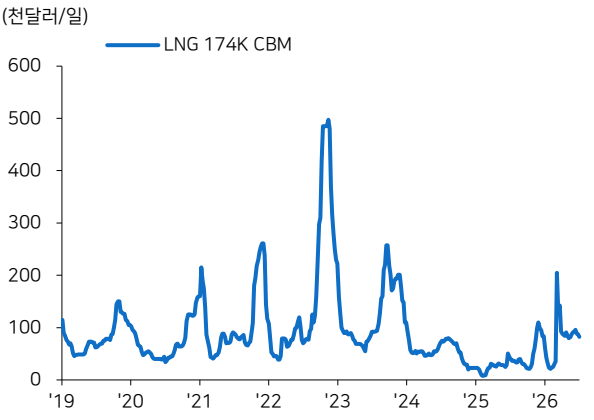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184.8(-142.1 WoW)



VLCC Spot Rate 217.6WS (+29.7p WoW)



LNG Spot 운임 86.5천달러 (+4.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중국·한국에 빼앗긴 왕좌, 1조 엔 쏟아부어 되찾는다"... 일본 조선 대국 '부활의 역습'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uJsG0V

일본 정부가 중국과 한국에 밀려 10%대 초반까지 추락한 조선업 점유율을 회복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조 엔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보도됨. 이마바리조선과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MU)의 합병을 비롯해 해운사, 엔진 제조사, 기자재 업체가 하나로 뭉친 수직 통합형 '올 재팬' 동맹을 구축하여 대대적인 구조 재편에 나선다고 전해짐. 일본은 자동화 지연과 심각한 인력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의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알려짐.

'마스가' 다시 불지핀다...정부·조선 3사, 美 찾는다 (헤럴드경제) https://zrr.kr/iHqV7p

이달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의 구심점이 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 경영진이 참석하며, 향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비롯한 기술 협력과 생산성 개선 등 MASGA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방안이 논의될 전망으로 전해짐. 미국 측도 노후화된 조선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의 함정 건조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조선사들이 미 해군으로부터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정보 요청(RFI)을 접수하여 대응을 마치는 등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알려짐.

한화오션, 신안우이 WTIV 건조 돌입...재생에너지 사업 확장 '속도' (뉴시스) https://zrr.kr/RNT1yh

한화오션이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투입될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의 강재 절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조에 돌입했다고 보도됨.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많은 WTIV 건조 실적을 보유한 한화오션은 이번 선박에 글로벌 선급 규정과 지난 10년간 축적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상풍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짐. 또한 한화오션은 WTIV 건조를 넘어 현대건설과 함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의 설계 · 조달 · 시공(EPC)을 수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반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20억弗 선물환 매도 출회...다음주 추가 매도 (연합인포맥스) https://zrr.kr/LX5Qxv

한화오션은 기존의 환 오픈 전략에서 벗어나 환헤지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10일 20억달러 규모의 선물환을 매도하고 다음 주에도 추가 매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이번 대규모 선물환 매도와 더불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 상장에 따른 달러 자금 유입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의 하방 압력이 더욱 가중될 전망으로 전해짐. 한화오션의 이번 조치로 인해 달러-원 환율은 장중 한때 1,499.30원까지 하락하는 등 시장에 유의미한 변동성을 일으켰으며, 이후 소폭 반등하여 1,501.4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알려짐.

나노, HD 현대중공업 정기 품질평가 현장 실사 성료 (뉴시스) https://zrr.kr/G35qXG

선택적촉매환원(SCR) 촉매 전문기업 나노가 선박 엔진용 친환경 SCR 촉매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품질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HD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정기 품질평가 및 현장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 힘센엔진품질경영부가 나노의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 원자재 입고부터 가공, 성형, 소성 및 최종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 라인과 안전 · 보건 · 환경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점검했다고 전해짐. 나노는 이번 평가를 통해 HD현대중공업과의 동반성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공급망을 유지할 전망으로 알려짐.

"탈탄소 앞당기자" HD 현대 유럽 컨퍼런스서 연료전지 선박 기술 입증 (더구루) https://zrr.kr/LigpXm

HD한국조선해양이 오는 10월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시스템의 상용화 과제와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고 자사의 친환경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은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을 통해 친환경 연료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전해짐. 특히 HD유럽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노르웨이 선급 등과 협력하여 크루즈선에 SOFC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 설계와 폐열 회수 기술 개발에 매진하며 유럽 시장 내 탄소중립 대응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